

# 분이의 서순이



김 형 운

1

《따르릉- 따르릉-》

학교의 종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현관에서도 복도에서도 따르릉따르릉, 2층에서도 따르릉따르릉 종소리는 어디서나 요란히 울렸습니다.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쪽잠에 들었던 분이가 눈을 빠르게 떴습니다.

분이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그는 복도 그림판에 있는 지주집 머슴아이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아직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판이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소리에 분이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는 쌀함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수수쌀이 퍼그나 남아있었습니다.

채 갈지 못했다고 또 매를 맞을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제 가야 이 머슴살이가 끝나나?)

분이는 한숨을 쉬며 망을 갈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쪽잠에 들었던것입니다. 종소리에 깨어난 그는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여기가 어떨가?)

그는 학교의 넓고 화려한 현관이며 복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정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꽃등 그리고 셀수없이 많은 방문들, 그 무엇이나 다 처음 보는 희한한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왕이 사는 집일가? 아, 저기에 한번 내려가봤으면...)

분이가 황홀해서 내려다보고있는데 어서 내려와보라는듯 그림판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쪽 뻗었습니다.

분이는 살금살금 복도에 내려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저도 모르게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몽당치마, 해진 짚신, 굵히고 터진 다리... 자기의 몸차림이 그 화려한 복도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른알른한 바닥을 손으로 만져도 보고 대리석기둥에 얼굴을 비벼도 보며 한걸음 한걸음 발을 내디디었습니다.

이때 어느 교실문밖에는 한 녀학생이 서있었습니다. 새순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지각을 하고 들어갈가말가 망설이고있는 중이었습니다.

분이는 멀리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곱고 화려한 그의 꽃무늬뜨개옷과 주름잡힌 치마 그리고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꽃신, 머리우에 함뿍 피어난 빨간 꽃리봉...

분이는 그가 틀림없이 재산이 굉장하듯 많은 대감네 집 따님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에게로 다가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씨, 문안드립니다.》

마음을 조이고있던 새순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씨라니?》

그 역시 별난 옷차림을 한 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새순이는 너무도 이상스러워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분이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점점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아씨,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도 으리으리해서 한번만이라도 뵈아보고싶었어요.》

《윗! 애가 왜 이러니?》

새순이는 난처해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보아하니 분이도 자기 나이또래의 아이였습니다.

《너 예술소조원이지?》

《예술소조원이라니요?》

분이는 말뜻을 몰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싸게 굴지 말아. 너 예술소조원이지? 아주, 공훈배우같은데, 옷차림도 행동도 꼭 머슴애 비슷해. 영화에 나오는것과 똑같구나.》

새순이는 분이가 예술소조에서 무슨 새 종목을 연습하는게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몇학년 몇반이냐?》

《난 그런건 몰라요. 난 황지주집 머슴이야요. 3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진 빛값으로 들어왔어요.》

《호호호, 앤 정말 잘하구나. 소조실에서나 연습할것이지 너 부끄럽지도 않니?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알고지내자. 난 새순이

라고 해. 락원동 7호아파트에서 살아.》  
새순이가 웃으면서 반겨주어서야 분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난 분이야. 바로 저 집에서 왔어.》  
분이는 북도 한쪽에 있는 그림판의 지주  
집을 가리켰습니다.

《뭐라구?》  
새순이는 분이와 함께 그쪽으로 가보았습  
니다. 그리고보니 늘 보아오던 쪽잠에 든 분  
이가 보이지 않았습다.

찬찬히 보니 얼굴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됐구나, 네가 그 잠자던 분이였구나.》  
새순이에겐 분이가 이젠 친동무처럼 느껴  
졌습니다.

《여긴 우리 학교란다.》  
《야, 새순인 참말 좋겠어. 이런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말이지.》

분이는 매우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  
았습니다.

《좋은, 누구나 다 배우는걸. 학교에 오  
면 선생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하고...》

새순이는 요사이 학습을 게을리하는 아  
이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나 학습반동무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늘 통제를 해서야  
공부를 하곤 하지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구. 난 공  
부를 하고싶어 죽겠어. 하루종일 지주집 망  
돌만 돌려야 하니...》

분이는 자기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망돌을 돌리는거? 난 그렇게 재미나겠  
어. 유희장에서 볼레바퀴 타는것처럼 빙글  
빙글... 애 분이야, 그럼 우리 서로 자리를  
바꾸자꾸나. 난 공부하기 재미없는데 그 집  
에 들어가 망돌을 돌리구 넌 내대신 공부를  
하러꾸나.》

새순이는 좋은 생각이라도 해낸듯이 분이  
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머슴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구 그러니?》

분이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춤거렸습  
니다.

《머슴이란게 뭐야? 난 머슴도 좋아. 그  
러니 어서 바꾸어보자꾸나.》

새순이는 분이에게 자기의 책가방까지 쥐  
여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이것이 진짠지  
가짜지 어리벉벉해 말도 못하고 서있었습  
니다. 그러거나말거나 새순이는 분이가 있던  
지주놈의 기와집으로 훌 들어가버렸습니다.

## 2

방안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이란게 뭐 이래?)

새순이는 대뜸 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망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겁기는 망짜이라더니.》

새순이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제서야  
망돌이 드르르 굴기 시작했습니다.

《요까짓거 내가 돌려내지 못할라구?》  
새순이는 망돌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수수쌀을 넣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돌려대기  
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옮기만 하던  
망돌이 들들드르르 말을 걸었습니다.

《돌리기만 하면 되니? 수수쌀을 넣어야지.》  
새순이는 그제야 함지에 담겨있는 수수쌀  
을 집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다 갈아지면  
또 넣고 이렇게 반복하느라니 흥미거리로  
생각하던 일이 점차 나른해났습니다.

《앵이, 이런 일은 못해먹겠다.》  
새순이는 벌써 망갈기가 싫증이 나 물리  
았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손이 망손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놔라, 왜 내 손을 잡고있는거야?》  
아무리 잡아당겨도 망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순이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때 머리우에  
서 《휘-익!》하는 휘파람소리가 났습니다.  
새순이가 섬쩍해서 쳐다보니 뱀의 꼬리같은  
것이 머리우에서 흔들거리고있었습니다.

《앗- 뱀!》  
새순이는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러자 망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건 벽에 꽂아놓은 회초리란다. 망을

갈다가 쉬기만 하면 사정없이 때리곤 해.  
난 네가 매를 맞는걸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을 놓아주지 않는단다. 자, 어서 수수쌀  
을 갈자구.》

새순이는 눈을 뜨고 찬찬히 벽을 쳐다보  
았습니다. 정말 그것은 회초리였습니다. 그  
놈이 저절로 꼬리를 휘둘러가며 소리를 내  
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망돌이 속삭이였습니다.  
《저 회초리는 지주놈을 등대고 저렇게  
기승을 부린단다. 저것을 다치기만 하면 더  
큰 회초리가 들어온단다. 그러지 말고 어서  
수수쌀을 갈자.》

새순이는 할수없이 다시 망을 갈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꼬부리고 앉아서 일을 하느라니  
이젠 다리까지 쏘아났습니다.

《난 정말 못 갈겠어!》  
새순이는 다리를 퍼더버리고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망돌은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  
았습니다,  
《이 수수쌀을 하루에 다 못 갈면 머슴기  
간이 한달씩 더 길어진단다. 난 네가 일생  
동안 머슴살이만 하는걸 보지 않으려고 그  
래. 어서 갈자.》

망돌이 속삭였습니다.  
이때 또다시 회초리가 《휘-익!》 휘파람

소리를 내며 허공에서 《8》자를 그었습니다. 새순이는 모지름을 써가며 망돌을 돌렸습니다. 이마에선 땀이 내뿜고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더니 엉치까지 쏘아났습니다.

《난 더는 망을 못 갈겠어! 난 학교에 갈테야! 난 공부할테야.》

새순이는 더 견뎌낼수가 없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월사금이 있니? 그리고 입학금이 있니?》

망돌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월사금이 뭐야? 입학금이란건 또 뭐야?》

《학교에 들려면 입학금이 있어야 하고 달마다 월사금도 내야 한단다.》

《공부를 하는데 무슨 돈을 낸다구. 난 그런건 몰라. 공부를 하겠어.》

그런데 새순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머리우에서 《휘-익!》하고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이번엔 회초리가 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찢쩍찢쩍 내리쳤습니다.

《아야야! 아야야!》

다리에 시퍼런 줄이 짙게 생겨났습니다.

《아유- 어머니!》

새순이는 몸을 비틀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할수없이 망돌을 돌렸습니다.

그제서야 회초리는 다시 벽에 가서 떡 붙여섰습니다.

새순이는 흑흑 흐느끼면서 《난 공부를 할테야. 난 학교에 가고싶어.》하고 입속으로 되뇌이었습니다.

이때 안채에서 지주녀편네의 짜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야, 망을 다 갈았으면 빨리 가루를 가져와!》

새순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수수쌀은 절반도 갈지 못했습니다.

《아니, 병어리가 되었나. 왜 대답이 없어?》

년놈의 자지러진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발각 열렸습니다.

《이년아, 못 들었어?》

지주녀편네는 방안에 불쑥 머리를 들이밀다말고 그만 눈이 동그해진채 굳어졌습니다.

새순이의 화려한 옷차림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유, 저 옷! 이년이 어디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을까? 우리 딸도 못 입은 꽃무늬옷을!》

지주녀편네는 너무 기가 차서 황황히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아유- 저걸 좀 봐요!》

《뭐라구?》

쇠바가지를 긁는 소리와 같은 지주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두놈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주놈도 새순이의 훌륭한 옷차림에 홀리워 꿈이 아닌가 한참이나 말도 못하고 서있

었습니다.

《저런 옷은 궁궐안의 공주도 입어보지 못했을거야!》

아름다운 꽃무늬뜨개옷이며 파란 치마, 빨간 양말바지며 나비가 붙어있는 꽃신, 모든것이 다 처음 보는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년이 얼굴도 달라졌어요!》

지주녀편네는 새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것이었습니다.

《영?》

지주놈도 눈치를 챘는지 눈을 더 크게 뜨고서는 《분이야, 얼굴을 쳐들지 못할가?》하며 발을 탕 굴렀습니다.

《난 분이가 아니야요. 난 새순이야요.》

새순이가 얼굴을 쳐들고 쏘아보자 놈들은 무슨 도깨비에게 홀린것처럼 병병해서 서로 마주보는것이었습니다.

《그럼 분이는 어데 갔어?》

《분이는 나와 바꾸었어요. 분이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년이 공부를 해? 보아하니 네년이 분이를 어데로 쪼여보냈구나. 회초리맛을 봐야 알겠군. 회초리!》

지주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회초리가 휘파람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휘휘 돌다가 그의 종아리며 어깨며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야야! 왜 날 때려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가면 될게 아니예요. 난 학교에 공부할래요.》

《닥쳐! 분이년을 보냈으니 대신 네가 5년동안 머슴을 살아야 해!》

《5년이라구요? 난 단 하루도 여기선 못 살겠어요.》

《일을 잘못하면 5년도 적어. 10년, 15년, 기한은 점점 늘어나는 법이야.》

지주놈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녀편네년이 그놈의 귀에 대고 속살거렸습니다.

《보아하니 보통집 딸애같지 않수다. 어느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집 따님같아요. 만약 너무 그러다가 큰 화를 입으면...》

그러자 지주놈도 겁에 질리는지 머리를 두어번 끄덕이는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이년을 놓쳐버릴수는 없어. 저년을 꼭 붙들어두어야 해.》

그놈은 체면을 깎이우지 않으려고 발을 탕탕 굴러했습니다.

《네년이 우리 분이를 쪼여보냈으니 오늘 밤 새워서라도 수수쌀을 다 갈고 5년동안 머슴을 살 궁리를 해라! 회초리가 지켜볼테니 그런줄 알아! 이년!》

그리고는 두놈이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순이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망손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난 네가 또 매를 맞는걸 보고싶지 않아.》  
 망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머리가 트이지 못한 망들은 오직 그렇게 하는것이 새순이를 도와주는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새순이는 망손을 잡은채 흐느껴울었습니다.

3

이날 분이는 새순이와 자리를 바꾼 후 교실앞에 가서 망설이고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공부를 한단 말 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장 월사금부터 내라고 할텐데.》  
 이런 생각에 미친 분이는 교실에 들어가기를 단념하고말았습니다.  
 《난 문밖에서 듣는것만이라도 좋아. 이것만이라도 나는 정말 기쁜걸.》  
 그는 문밖에 앉아 교실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하는 우리 나라 돈 한푼 안 들이고 배우는 나라》  
 은방울소리와 같은 고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배운다구? 그럴순 없어.》  
 분이는 그 말을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일 나어린 꼬마들이 공부하는 1학년 교실쪽으로 갔습니다. 쉬운것부터 차례로 배워야 했으니깐요.  
 분이는 새순이가 주고간 책가방에서 학습장과 연필을 꺼내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훌륭한 학습장들이어서 차마 거기에다 서툰 글자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던 끝에 분이는 복도의 한끝에 놓여있는 휴지통쪽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기엔 종이조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못쓰게 된 꼬다리연필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 쪽으로 와서 《가 가져겨》하고 한자한자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2학년교실 문밖에 앉아있어보고 또 다음시간에는 3학년교실 문밖에 앉아있어보았습니다.  
 어느덧 하루공부가 끝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는 조용해



졌습니다.  
 다만 음악실쪽에서 누가 혼자 남아서 편습을 하는지 《등기당, 등기당.》 가야금소리가 은은히 들려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복도에서 아이의 흐느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울고있을가?》  
 분이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그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흐느낌소리는 바로 그림판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새순이가? 나때문에 새순이가 울고있구나!》  
 분이는 그제야 모든걸 알아차리고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새순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때문에 네가 머슴일을 하다니...》  
 분이는 급히 망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새순이의 손이 슬그머니 망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머슴살이는 지긋지긋해!》  
 새순이는 머리가 핑 돌아 한참동안 정신을 가다듬을수가 없었습니다.  
 《새순아, 어서 나가봐. 넌 나처럼 살아선 안돼.》  
 분이가 눈물이 그렇게 해서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남겨두고 어떻게 혼자 나간단 말이나?》  
 새순이도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나야 이렇게 살아온걸 어쩌겠니? 그대신 언제나 나를 잊지나 말아줘.》  
 《응, 나는 네 뒤편까지 공부를 더 잘하겠어!》  
 새순이는 발걸이 내키지 않아 한참이나 분이를 가엾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가 밖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보니 어느새 자기는 학교 복도의 그림판앞에 서있었던것입니다.  
 이날 새순이에겐 아름답고 화려한 자기네 학교가 얼마나 정다운지 몰랐습니다.  
 아, 이런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차례질수 있는 행복이 아니였구나!  
 그에게 새삼스레 늘 잡아보던 교실문손잡이며 윤기돌아 알른알른한 책걸상과 까만 칠판 그 모든것이 더없이 소중한 여겨졌습니다.  
 새순이는 이날부터 한시도 분이를 잊은적이 없답니다.  
 하루공부가 끝나 집으로 갈 때면 그는 꼭 그림판앞에 서보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 애는 지쳐서 쪽잠에 들었구나.》  
 새순이는 5점짜리만 주련이 썩여있는 자기의 학습장을 그에게도 보여주고싶었습니다.